



나라사랑 역사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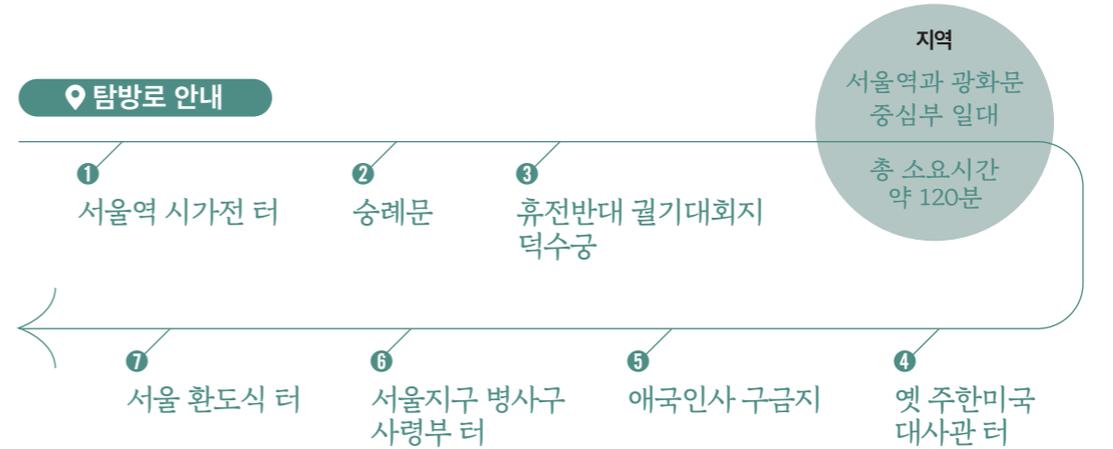
제8편_9·28 다시 찾은 서울,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나라사랑 역사의 길’은 독립기념관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한 국내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획된 기록물이다. 이 길은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사적지를 중심으로 현충시설, 전근대 역사유적, 경관 등을 탐방할 수 있는 역사의 길로, 우리나라 989개의 독립운동시설과 1,322개의 국가수호시설 등 총 2,311개의 현충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탐방 코스를 제공한다.

도로교통 저널에서는 독립운동과 6·25전쟁의 국가수호 사적지를 알리고, ‘나라사랑 역사의 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획 연재를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1950년 9월 28일까지 이어진 국군과 유엔군의 서울 수복작전 당시 시가전이 벌어졌던 주요 진격로를 따라가 보자.

📍 탐방로 안내

이 코스는 서울역 광장에서 출발해 승례문,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 일대를 지나 광화문·경복궁으로 이어지는 도보·드라이브 겸용 역사 탐방로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9월 28일 서울 수복까지 이어진 시가전의 흔적과 전쟁 후 수도를 회복한 국가 재건의 현장을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체 소요 시간은 이동과 관람을 포함해 약 2시간 내외로, 도심 한복판에서 6·25전쟁의 기억과 오늘의 서울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코스다.



📍 함께 갈 만한 곳

서울역문화관, 덕수궁, 서울광장, 서울시립미술관, 청계천, 신문박물관, 광화문광장

📖 코스 개요



1950년 6월, 북한군에 점령된 서울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계속된 국군과 유엔군의 치열한 시가전 끝에 되찾은 도시였다. 9·28 서울 수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무너졌던 수도의 기능과 국민의 사기를 다시 일으킨 전환점이었다. 이어 9월 29일 중앙청에서 열린 ‘서울 환도식’은 전쟁 속에서도 수도 서울을 지켜내겠다는 국가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한 상징적 순간으로 기록된다. 이번 코스는 그날의 전장을 따라가듯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발걸음을 옮기며, 전쟁의 상흔과 민주주의·자유수호의 역사를 현재의 거리 위에 겹쳐 보는 길이다.

코스 1

서울역 시가전 터

서울역 일대는 서울 수복 당시 시내 진입을 둘러싼 격전지였다. 역과 철도, 한강 방면 교통축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요충지였기에 국군과 유엔군, 후퇴하던 북한군이 건물과 거리마다 치열한 시가전을 벌였고, 지금은 표지석과 안내판이 당시 전투의 흔적을 조용히 전하고 있다.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05



코스 2

승례문

승례문은 남대문으로 더 익숙한 조선 시대 도성의 정문이자, 서울로 들어오는 상징적 관문이었다. 9·28 서울 수복 당시에도 이 일대는 도심 남측 방어선과 진격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오늘날 복원된 성문과 도로를 바라보면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수도가 다시 일상과 교통의 중심으로 되살아난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40



코스 5

애국인사 구금지



중구 다동 일대에 있었던 '애국인사 구금지'는 6·25전쟁 시기 후방 치안과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각종 인사들이 조사와 구금을 겪었던 곳으로, 전쟁이 가져온 폭력성과 인권의 상처를 함께 증언하는 공간이다. 지금은 도심 빌딩 사이 표지판만이 남아 있지만, 국가수호를 위해 싸운 이들의 희생과 동시에 비극적 경험을 돌아보며, 안보와 자유·인권의 균형을 생각해 보게 한다. 현재는 멸실되어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청계천 복개공사와 함께 도로로 바뀌었다.

📍 서울시 중구 다동 33

코스 6

서울지구 병사구 사령부 터



종로 일대에 위치한 서울지구 병사구 사령부 터는 6·25전쟁 당시 징병과 병력 보충을 담당했던 곳이다. 전쟁 발발 후 병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재설치된 이 사령부는 현역 장병과 제2국민병 소집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 생존을 위해 인적 자원을 총동원했던 시기의 긴박함을 보여준다. 현재는 멸실되어, 당시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36

코스 3

휴전반대 궤기대회지 덕수궁

덕수궁 일대는 6·25전쟁 후반, 휴전 논의가 진행되던 시기 '휴전반대' 집회가 열렸던 장소로,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완전한 승리와 통일을 요구하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였던 곳이다. 오늘날 석조전과 돌담길은 도심 속 휴식 공간이 되었지만, 국가수호 사적지 안내판은 이곳이 한때 치열한 안보·외교 논쟁의 현장이었음을 조용히 상기시킨다.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9



코스 4

옛 주한미국 대사관 터

을지로 일대에 위치한 옛 주한미국 대사관 터는 6·25전쟁 전후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이 외교군사 전략을 논의하던 핵심 공간 가운데 하나였다. 오늘은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국가수호 사적지로 지정된 이 자리에는 냉전기 동맹과 지원, 그리고 서울 수복 이후 재건 과정에서 외교가 갖는 무게를 되새기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진은 미국대사관이 있었던 반도호텔 터. 현재는 롯데호텔이 자리 잡고 있다.

📍 서울시 중구 을지로 30



코스 7

서울 환도식 터



경복궁 내 중앙청 자리로 알려진 '서울 환도식 터'는 1950년 9월 29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울 환도식을 거행한 곳이다. 인천상륙작전과 9·28 수복으로 되찾은 수도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유엔군 지휘관들이 함께한 환도식은, 폐허 위에서도 다시 국가를 세우겠다는 다짐을 온 세계에 알린 상징적 장면으로 남아 있다. 현재는 경복궁이 복원되면서 당시 환도식 터는 완전 멸실되었다.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세종로 경복궁 내)

이 길은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진 짧은 동선이지만, 한 걸음마다 전쟁과 수복, 환도와 재건의 서사가 겹쳐진다. 오늘의 변화한 도심을 걸으며 9·28 서울 수복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 그것이 곧 '나라사랑 역사의 길'을 걷는다는 뜻일 것이다.

• 자료와 사진을 제공해주신 독립기념관, 서울특별시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